

초등 5학년
독후활동지 (학생용)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송헌방 암살 사건

글 박은숙 | 그림 김창희

스폰북



송헌방 암살사건

- 글: 박은숙
- 출판사: 스펀북
- 분량: 164쪽
- 교과 연계: 국어 5-1 가 4. 작품에 대한 생각
국어 5-2 가 1. 문학이 주는 감동
- 그림: 김창희
- 정가: 12,000원
- 대상: 초등 고학년

📖 책 소개

경복궁의 담장을 따라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할 햇불이 전부 꺼진 어느 날 밤, 얼굴을 가린 무사들이 바람을 갈랐어요. 그리고 경복궁 동십자각 건너편에 있는 송헌방에서 조선 개국의 일등 공신인 정도전이 암살되고 말았지요. 조선을 설계한 일등 공신이 왜 암살자들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는 것일까요?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표지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송헌방 암살 사건》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



정도전 죽음의 미스터리

송헌방 암살 사건

번호	앞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
1	
2	
3	



독서 전

• (2~3) 《송현방 암살 사건》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정도전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궁궐 담장의 횃불이 모두 꺼진 밤,
 얼굴을 가린 한 떼의 무사들이 바람을 가르다.
 칼끝이 향하는 곳은 경복궁 동십자각 건너편 송현방!
 주요 표적은 새 나라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
 조선을 설계한 일등 공신이 왜 암살자들의 표적이 되었을까?
 그들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는 것일까?

2 송현방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예상해 보세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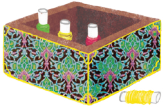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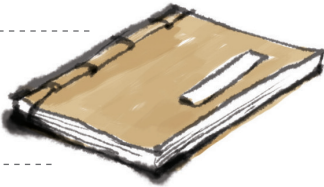


독서 중

• 정몽주와 정도전은 마음을 나누는 벗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나누는 벗이 있나요? 아래 글을 읽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 고마운 벗을 떠올려 보아요. 그리고 벗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보세요.

[51쪽] 정도전과 정몽주는 중국 춘추 시대의 백아와 종자기 같았을까? 백아가 마음속으로 산을 그리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옆에서 “허허, 그 산 참으로 높고도 높구나.” 하고, 또 백아가 너울대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는 듯하구나.” 하며 감탄했다고 한다. 말을 하지 않아도 통했던 친구들의 우정이다. 훗날 종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백아는 더 이상 자기의 거문고 소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며 거문고 줄을 끊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
.....
.....
.....
.....
.....
.....
.....
.....
.....
.....
.....
.....
.....
.....
.....
.....
.....
.....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내용을 생각하며 책 읽기

• 《송헌방 암살 사건》의 일부입니다. 질문에 답해 보세요.

[53-56쪽] “마마, 혹시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정몽주와 어떤 관계였는지도 아시나요?”

남휘가 건넨 질문에 양녕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남휘는 괜한 말을 꺼낸 듯하여 후회했다.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

“자네가 궁금한 것이 두 사람의 관계인가?”

물론 남휘가 진실로 궁금한 것은 정도전이 역적이었느냐, 그리고 자기 집안의 남은 대감이 그를 따라 역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걸 물을 수는 없었다.

“예, 우연히 정도전과 정몽주는 친구이자 원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떡하다가 그리되었나 싶어서요.”

“그럼 내가 사실을 말해 주지. 정몽주는 아바마마와 정도전이 죽었네.”

양녕은 첫마디부터 놀라운 말로 시작했다.

남휘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찌 그토록 친했던 사람을…….”

“둘이 절친한 사이라는 걸 아는군. 정몽주와 정도전, 이 둘은 망해 가는 고려를 바로잡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뜻이 같았지. 사대부라면 당연히 그리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방법이 서로 달랐던 거야.”

“두 사람 다 성리학을 공부했는데 방법이 달랐다니요?”

1 정몽주와 정도전은 생각이 어떻게 달랐나요?

2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독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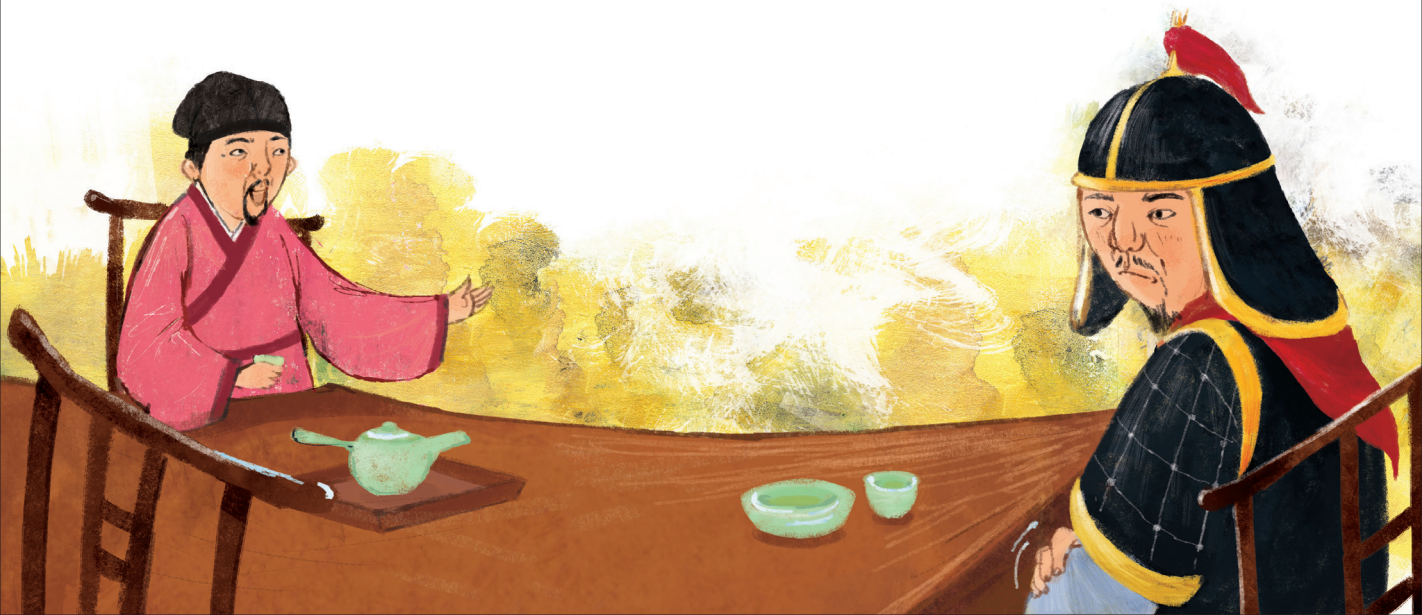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92쪽] ① ()은 오랜 경험을 가진 장수다. 흥건적이 서경을 함락시켰을 때 이를 물리쳤고, 두 해 뒤 개경까지 쳐들어왔을 때도 군사를 지휘하여 승리를 이끌었다. 왜구가 남해안 지방을 휩쓸 때 역시 ()이 지휘했다. 그는 강직하고 청렴하여 따르는 이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② ()는 지방의 명문가 출신으로 역시 흥건적과 함께 왜구를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장수다. 집안 대대로 군사를 길러 그 병력이 상당히 크다. 든든하게 국경 지역을 지키고 있어서 ()가 가는 곳이면 백성들이 마음이 놓인다고 한다.

1 정도전의 설명을 읽고 인물의 이름을 맞춰 보세요.

2 두 사람 중 정도전은 누구를 선택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내용을 생각하며 책 읽기

- 《송헌방 암살 사건》의 일부입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을 찾아와 정몽주를 죽이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21-124쪽] 두 번째 유배가 시작되었다. 왕이 더는 문제 삼지 말라고 했던 문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색과 우현보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두고 정몽주와 그 무리는 나를 공격할 기회로 삼았다. 나와 조준, 남은은 그들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처형하라며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유배지에 있던 어느 날 이방원이 나를 찾아왔다. 이 패기만만한 젊은이는 행여 내가 품었던 뜻을 꺾을까 싶어 걱정하는 것 같았다.

[124쪽] “내가 정몽주를 없애겠습니다. 그가 살아 있는 한 우리의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 길밖에 없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스스로 길을 내며 걸어갈 작정입니다. 훗날 하늘이 그 허물을 묻는다면 제가 다 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늘이 정몽주를 살리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살 것이다.

나라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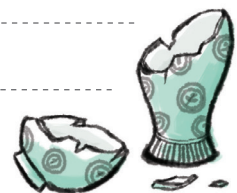
.....

.....

.....

.....

.....





독서 후




• 다음은 《송현방 암살 사건》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그림	장면 설명하기



독서 후

• 다음은 《송현방 암살 사건》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그림	장면 설명하기
	
	
	



독서 후

• 다음 힌트를 참고하여 《송헌방 암살 사건》에 나오는 낱말이 무엇인지 맞춰 보세요.

바닥이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구덩이 (9쪽)	중국 랴오허강 동쪽 지역 (12쪽)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13쪽)
적의 상황을 알아내어 몰래 알려 주는 첩자 (13쪽)	무엇이 언뜻언뜻 빨리 지나감 (20쪽)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30쪽)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임금에게 올리는 글 (62쪽)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95쪽)	타고난 본성 (155쪽)